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대처

열왕기상 8:33-40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꺾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라 갓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작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어쩔 줄을 모르고 정치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1년이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감염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백신도 무용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생겨 제일 먼저 중소기업들이 종업원들을 내 보내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있던 사람도 내 보내는 판에 대학 졸업생들은 채용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팍팍해지고, 앞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거리에는 도둑과 폭력이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전심을 다해 자비량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행사, 진료소, 식당 등을 운영하시던 선교사님들께서 사업장을 닫으시고 수입 없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간호사, 의사 선교사님들께서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음식과 약품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던 베네수엘라 동역자님들은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봉헌식 기도 중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났을 경우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왕의 신앙적 뜻을 계승하여 그가 짓고자 했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전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근이나 전염병 등의 재앙을 만날 때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으로 스스로를 애써 안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앙의 때에 이것이 우리와 이 시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개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신6:24).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시112:1).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회개할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 I. 우리의 믿어야 할 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재앙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대신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롬5:7). 이로써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며, 하늘이 꺼지고 땅이 사라져도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탄 마귀는 재앙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해야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재앙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재앙이 악인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특정인을 징계하시는 일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번 전염병은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신자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죽습니다.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열여덟 사람이 치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II. 우리의 회개할 바.

첫째,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이 시대의 교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놀랄만한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유전자 조작과 생명복제까지 도전하며 AI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었습니다(단12:4).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생동안 대부분이 50 마일 이내에서 살았고 다른 나라를 가보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항공 산업이 발달하여 빠르고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한 지역, 한 도시에 국한되어 종결될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인간이 구축한 항공, 도로망을 통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대문명을 자랑하며 교만해진 인간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인의 죄를 나의 죄로 영접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의 큰 강점은 가정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요 목자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해졌던 자녀들과 대화하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과 잘 만나지 못함으로 그분들과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의 참 가족입니다. 그 동안 동역자들의 사랑과 동역,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점, 힘써 사랑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들, 만나서 식사하고, 악수하고, 허그하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모이는 것들, 깨끗한 공기와 물,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었던 생필품과 식재료 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점을 회개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실로 우리는 주시면 받고 손을 펴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낯을 숨기시면 멀고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시104:28,29). 우리의 숨 쉬고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셋째,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가끔씩 각국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의 표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온 인류가 하나구나.” 민족주의가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님을 봅니다. 바이러스 공격 앞에 모든 사람이 속수무책입니다. 신분, 지위, 빈부, 노소,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걸린 자와 사망자 모두 숫자로만 표시될 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한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공존 번영을 위해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입니다. 모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을 찢어, 나의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 III. 마땅히 해야 할 바.

첫째, 믿음으로 감사해야겠습니다. 골로새 3: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3:15).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던 사업장 문을 닫아 수입은 끊어지고, 지불할 영수증,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수도, 전기, 의료 등 열악한 공공서비스로 고난 받고 계시는 제 3세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의 마음은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바이러스로 죽어 가고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간호사, 의사 동역자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 하시는 모든 일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선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는 막연하나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누가 가져오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던 것을 회개하고 가장 확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해야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분들을 섬겨야겠습니다. 그 동안 자기만 돌보며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겠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님들 중에 직장을 잃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종들과 동역자들의 사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세히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본부와 한국본부, 각 파송지부는 협력하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구제현금이 모아져서 전달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최선을 다해 보살피며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불신 친척이나 이웃을 섬겨야겠습니다. 신자들은 재앙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의 날에 심히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이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섬길 때 그 분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빌1:12). 우리가 당한 이 시기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독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 동안 예전에 암송하였던 성경카드를 꺼내어 다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119:92). 또한 우리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동역

자들과 말씀 공부를 하며 양식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지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국 어느 지부의 온라인 주일예배 접속자 수가 평소 예배 참석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던 가정교회들과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외 타 몇몇 지역에서도 온라인 예배 접속자 수가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는 메시지를 녹화해서 동일 시간에 함께 접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님들이 Zoom 이나 Hangouts 같은 화상 대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들과의 1:1 성경공부와 그룹공부들을 신실히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한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양들을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성경공부에 초청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익한 책을 읽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선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중보기도를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 했던 것을 회개하고 체사장적인 자세로 기도를 감당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들을 위해, 위정자들과 이웃을 위해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는 일단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는 기도가 성의있는 기도요 마음을 들여 하는 기도입니다. 세계본부 선교부에서는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중보 기도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무릎을 꿇은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합니다. 범세계적인 재난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짜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20. 4. 2)

윤모세 / 세계대표